

SWIFT 한국사무소 개소 기념식 참석

행사 개요

- 일시: 2009년 2월24일(화), 11:30 ~ 13:30
- 장소: 소공동 웨스틴조선 호텔
- 참석자: 은행, 증권사/기업/자산운용사 임직원 100명

식순

- 11:20 등록
- 11:30 고객 입장
- 11:45 SWIFT 환영사 - Ian Johnston, SWIFT아시아평양 사장
- 11:55 SWIFT 국가멤버그룹 의장 축사 - 부장님
- 12:05 외부주요 인사 축사 - 조영제 금융감독원 외환업무실장
- 12:15 기념 이벤트: 액자의 커튼을 같이 여는 이벤트 및 사진 촬영
- 12:20 네트워킹 오찬

기타

- 행사 당일 11시20분 출발, 행사장 도착(웨스틴조선호텔, 강신원 차장 동행)
- 당행 타 부서 공식 참석자: 영업지원센터 백윤주 팀장, 김용운 차장

<Next: 한국 NMG/UG의장 祝辭 Script>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WIFT 한국 National Member Group과 User Group 의장을 맡고 있는 외환은행 권오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늦었지만 2009년 기축년 새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과 여러분들의 기업에 더함이 없는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국내 전 시중은행과 외국은행 서울지점, 증권사 및 일반 기업을 포함 총 73개 가입기관들을 보유하고 있는 SWIFT가, 그간 저희 회원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한국지사를 개설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이번 국내지사의 개설은 SWIFT가 한국 Community의 지속적인 건의 외에도, 발신전문 기준 세계 20위권인 대한민국의 규모와 미래 성장성을 고려하였음은 물론,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개소식 행사 자체도 SWIFT가 앞으로 한글 웹사이트 개설 등의 멤버들을 위한 서비스와 향후 지속적인 업무영역 확대 등을 통해, 한국 금융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뜻 깊은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

우리나라가 SWIFT로 전문을 송신하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18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1992년 전국은행연합회가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이듬해 SWIFT이사

회가 한국 금융기관의 가입을 승인한 이래, 연간 약2천6백만 건에 이르는 발신전문을 처리하는 세계 22위의 규모로까지 성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Global' SWIFT는 문서규격과 진위성 검증방식의 변경 등 굵직굵직한 진화의 과정을 밟을 예정이며, 'Local' SWIFT는 멤버가입도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기가입한 삼성전자의 사례와 같이 일반 기업에 까지 가입자격의 문호를 넓힘으로써, 기존의 은행간 메시지의 교환 기능을 넘어 기업 고객 앞 Global Solution Provider로서의 역할로까지 그 범위를 넓혀갈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SWIFT조직은 금융결제원 SWIFT사무국을 중심으로 해서, SWIFT의 가입자격 확인과 중요 정책 등을 결정하는 NMG위원회와, 이용자 상호간 또는 SWIFT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사용자그룹 위원회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장은 NMG위원회에서 선출되고 NMG의장이 사용자그룹 의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위원회는 국내 SWIFT업무 활성화를 통해 이용기관의 금융업무 효율화와 수익성 제고를 도모하고, 국내 SWIFT이용기관의 개선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SWIFT 앞 제시하여 반영케 하는 기본방침 하에서, 국내 멤버들의 권익 향상과 이용자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일조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계획들이 SWIFT한국지사의 개선을 기점으로 더욱 활성화되고 Speedy하게 진행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SWIFT 가입자격을 일반 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SWIFT는 단순한 Messaging Operation 제공자의 기능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공급자 위주의 'Push Product'에서 변모하여 사용자 지향적인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내놓게 될 것입니다.

금융기관들도 기업의 Needs를 충족 시키기 위한 SWIFT와의 신속한 커뮤니케이션 필요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SWIFT 한국지사의 개설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촉진하게 되어 기업고객 앞 SWIFT-base의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표준화된 상품서비스는 기업과 금융기관 모두에게 안정적인 프로세스 운용과 투자액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SWIFT는 전세계 금융기관을 접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 가장 강력한 Global Standard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지사는 국내 이용기관들이 Global Standard로 한발 더 다가서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국위원회는 SWIFT본부로 하여금 지속적인 이용비용 감면과

이용자들의 교육에 대한 비용지원에도 적극 나서 주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국 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의 소리를 경청하며 이에 적합한 전략적 대응을 국내 금융기관들과 같이 해주기를 아울러 부탁할 예정입니다. SWIFT 한국지사가 이러한 요청들의 전달자 및 조정자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해 너무나할것없이 모든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들도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 SWIFT Community의 중심이 될 한국지사 또한, 국내 이용기관들이 SWIFT의 안정된 환경과 표준화 된 솔루션을 사용함으로써 Operational Risk를 줄이고 업무효율화를 통해 경비를 절감함으로써 현재의 금융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일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지사 개설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저 또한 의장의 자격으로 축하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국내 SWIFT 관련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다 함께 힘써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또 이 어려운 시간들을 슬기롭게 극복한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고대하겠습니다.

SWIFT 한국지사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